

한진-농협물류, 화훼농가 위해 꽃 나눔 행사

코로나19로 어려운 화훼농가 도와

한진은 농협물류와 함께 서울 중구 한진 빌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화훼 수요 감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선 한진빌딩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직원들에게 장미꽃 1000송이를 나눠주며 화훼소비 촉진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한진과 농협물류는 2017년 7월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택배'를 시작해 국내 우수 농산물의 유통·물류비를 절감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진택배와 농협물류 직원들이 한진빌딩 입주사 직원들에게 꽃을 나눠주고 있다. /한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자 수첩

김승호 <산업부>

“비상! 비상! 비상!”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90년대 군생활을 했던 나에겐 매우 익숙한 외침이다. 군대에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물정 모르는 초등학교생이 학교에서 무슨 훈련을 할 때마다 '비상'을 외쳤는지 가물거물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2020년 현재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 흑시나

경'도 대규모로 긴급하게 편성하고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을 면밀히 보살피야 한다. 주경은 1회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 마스크 몇 장을 구하기 위해 수 십미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구 시민들의 풍경을 그냥 넘겨선 안된다.

무엇보다 코로나추경은 판에 박힌 나눠주기식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에 세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밟고 못하고 있는 정치권은 이를 노려 정쟁을 더욱 격화시켜선 안된다. 정치적, 지역적 색깔론을 퍼기보단 이성적이고 냉철한 대안과 방향을 '민의를 전당'인 국회가 내놓아야 한다. 자칫 'O 문은 개가 O 문은 개보고 찢는 꼴'이 될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 한 교수는 1년 내 코로나19에 감염될 숫자가 전 세계 인구의 40~70%에 달할 것이라 우울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19에 걸린다고 해서 모두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범상치 않은 분명한.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 보다 더 말이다.

경제학자들이나 관련 연구원들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경고도 내놓고 있다.

그럼 이같은 비상 시국에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국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논의중인 '코로나추

국민들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은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배려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과도할 정도의 손씻기도 중요하다. 마스크를 만들어 싸게 파는 착한 사장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착한 건물주, 코로나 19 퇴치를 위해 힘쓰는 주변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비상시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 아닌 가장 따뜻한 것이 '사람'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해야 한다. 논의중인 '코로나추

/bada@metroseoul.co.kr

LH, 능률협회컨설팅 주최 '존경받는 건설공기업' 1위 선정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인정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진행한 '2020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산업별 조사에서 공공 건설공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매년 시행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기업의 혁신능력과 고객가치 등 6대 핵심가치

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이 종합 평가해 산업별 1위 기업을 선정한다.

LH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LH는 주요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사회적 가치 내재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LH 전주 사옥.

/정연우 기자 yw1964@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2월 27일 (음 2월 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데 자업자득이다. 48년생 먼저 칭찬하고 이해할 것. 60년생 비가 오니 밖에 나가지 않도록. 72년생 정도를 지나치면 하지 않으니 못하다. 84년생 마음만 바쁘고 진즉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다.
37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49년생 상대가 못마땅해도 오늘은 너그럽게 넘어가자. 61년생 조상님들 산소를 보살피두라. 73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85년생 문서운이 활발하니 거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
38년생 늦가을의 경치가 더욱 아름다우니 힘써라. 50년생 해가 지면 잠을 자듯 해가 뜨면 일을 해야. 62년생 기회를 놓쳐서 때늦은 탄식이 절로 난다. 74년생 집이 흠집투성이니 내 집이라 기쁘다. 86년생 말을 예의 바르게.
39년생 타협이 해결책이 아니겠지 마라. 51년생 지나친 자존감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63년생 새로운 계획은 많은 것을 가져온다. 75년생 하늘도 맑고 푸르니 여행을 떠나도 무방. 87년생 अच्छ 할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40년생 여행을 금하고 집 안 청소를 하자. 52년생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64년생 자신의 능력으로 승진하여 보람 있다. 76년생 부작절할 이상 관계로 망신 수가 있으니 자중. 88년생 이리저리 따지다 보면 결국 원점.
41년생 가리기보다는 옛 생각을 하여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53년생 나무의 가지가 커지면 반드시 부러지니 잠시 물러서 보라. 65년생 약기를 배워보라. 77년생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다. 89년생 작게 주고 크게 얻음.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3x3 grid: 3 4 | 6 2 | | | | 2 | 5 | 1 | | | | 6 | 4 | | | | | 2 | 5 | 6 | | | | 6 | 4 | 1 2

문제풀이: 3X3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내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도쿠는 가로,세로,2X3박스내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정답: 7 1 | | 6 | 2 | | 9 | | | | | 9 3 7 8 | | | | 9 4 | 8 | | | | 6 3 | | | | | 2 | 1 | | | | 8 2 | | 3 | 5 7 | | | | | | 1 9 4 8 | | | | | 5 7 2 4 | 3 9 | | | | 9 | 5 | 6 | 2 1

김상희의四季 걸으면서 생각

걷기는 유산소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표본임은 물론이다. 비싼 돈을 내고 체육관에 운동을 끊지 않아도 동네 주변의 작은 공원이나 산길에서도 굳이 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사색과 건강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운동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외국의 어느 의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쭈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라고 걷기를 그 어떤 방법보다도 우위에 두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암조차도 걷기로 예방은 물론 치료까지도 할 수 있다며 걷기의 만병통치 효능을 격찬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 걷기가 몸의 병만 고치겠는가.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속담이 있듯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색의 친구가 바로 걷기이다. 심지어 '경행'(經行)이라 하여 불교의 수행 방법의 하나가 바로 천천히 걷는 방법이었다. 천천히 걸으면서 알아차리는 정신수행의 방법으로서 경행은 '위빠사나' 수행의 한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근대 서양철학의 대표적 주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 세계도 어찌 보면 걷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똑같은 길로 산책을 했던 칸트는 걸으면서 자신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 사고를 곱씹어 사색한 결과 독일의 대표 철학자가 된 것 아니겠는가. 비록 뛰어난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마음이 복잡할 때 걸으면서 생각을 가다듬지 않는가?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97호